

맞벌이 가족의 코하우징 계획을 위한 조사(1) A Study for the Cohousing Plan of Dual-Income Family

최정신* 한주희**
Choi, Jung-Shin Hahn, Joo-Hee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plan Korean style cohousing for double-income families in the future by studying their lifestyle, housing needs and housing awareness on cohousing.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As for the life style of the subject families, it was a housewife that mainly does the household affairs despite of the status of double-income family. Also, as for the social activity, almost half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spending in child-care facilities was not sufficient and wanted to send their children to ones within their neighborhood 2) As far as housing awareness on cohousing concerned, among specific items, the child care area, the household affairs division area, and participatory awareness of residents in housing planning and management got higher scores, while as for awareness on utilizing common space, using the common hobby rooms, promenades and benches, exercise facilities, common yard, and study rooms got higher scores. When asked about the necessity for cohousing in Korea, they gave very positive answers, but the answer to their willingness to reside in it was less positive 3) Summarizing the housing needs on cohousing, it turned out that more people wanted to reside in suburban area with others having common grounds with them as for a desirable residence environment. They wanted the neighborhood to be composed of 10~29 families, and medium-density semi-detached house occupied by owners They wanted a mixture of independent management and entrust management for managing common facilities, and common meal once a week. They wanted indoor exercise facilities to be more extended than other common facilities, and the house of 100m²~130m² with 3 bedrooms, 2 bath rooms, and a large living room and dining room

키워드 : 맞벌이 가족, 코하우징

Keyword : Double-income family, Cohousing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대다수 주택의 디자인은 주부가 다른

주부와 서로 나누어 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상업적인 용역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되어 있어 많은 가사를 혼자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주부의 일을 도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가사업무를 주부개인이 수행고, 각각의 주부는 다른 주부들도 하고 있는 일을 동시에 그리고 같은 기기를 가지고 하고 또 한다. 이런 일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고립된 상태에

*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 주거학 전공, 교수. 문학박사.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학과 박사수료.

서 수행된다.) 김수경, 윤정숙(2002)의 ‘한·일 취업주부의 가사생활 실태 및 주거요구 비교’ 연구에서도 맞벌이 가족은 가족특성, 가사와 자녀양육에 관련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요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취업주부의 가사와 자녀양육을 지원해주기 위한 실비의 가사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단위주거 계획(2), 가사서비스 지원형 주거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주택은 독립된 단위로 구성되어 핵가족의 거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주택의 구조는 가족생활의 사적인 운영을 강화하고 가족끼리의 의존성을 바탕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어있다³⁾ 따라서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으로 인한 이웃과의 사회적인 관계, 공동체적 생활체험의 단절은 가사와 육아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족에게는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보다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기존 개별주택의 대안으로 공동체 생활양식을 기본으로 하는 코하우징을 발달시켰다. 북유럽은 다른 사회보다 비교적 일찍부터 전통적인 핵가족 형태가 변화하고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의 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직장 여성에게는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혼자 살고 있는 독신자나 노인들에게는 고독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이웃간에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돕고 살았던 옛날 마을의 개념과 비슷한 새로운 주거 대안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코하우징이다⁴⁾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맞벌이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을 줄여주고, 사회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지원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대안으로 코하우징을 제안함에 있어, 우리나라 맞벌이 가족의 생활과 코하우징의 주의식, 주요구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맞벌이 가족을 위한 코하우징 계획의 기초 자료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맞벌이 가족의 생활특성(가사작업수행 측면)은 어떠한가?

2) 맞벌이 가족의 코하우징에 대한 주의식은 어떠한가?

3) 맞벌이 가족의 코하우징에 대한 주요구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코하우징에 대한 주의식과 주요구를 살펴보고, 코하우징의 공간계획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소집단 워크샵 패널 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조사대상자의 생활분석과 함께,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코하우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코하우징에 대한 구체적 요구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패널에 대해 실시한 설문 자료의 분석 내용을 다루었으며, 소집단 패널을 상대로 코하우징의 계획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내용은 이후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녀양육과 가사업무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초등학교 이하의 가족생활주기에 해당하는 가족의 맞벌이 주부를 표집하였다. 가구구성은 부부간의 일상적인 가사수행이 이루어지는, 가족 모두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말부부의 가족유형은 표집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1) Karen A Frank, 최영순 번역, 인간과 주거, 1995, p 271-287

2) 독립된 부엌보다 다른 공간과 연결이 잘 된 부엌 계획, 가족의 상호작용과 가사일 분담을 유도하는 평면 개발 및 실비의 배려

3) 이경희, 공동주택 개발에 있어서 서구의 협동주택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논문집, 제38권 2호, 2000, p.186

4) 최정신, 제3의 연령대를 위한 고령화 사회에의 도전 스칸디나비아의 노인용 코하우징 대한건축학회지, 제47권 6호, 2003, p 55~56

조사대상 주부는 전일 근무 직업을 가졌거나 자영업주로서, 시간제 근무자는 표집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 패넬은 3-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여러 차례 동질의 집단을 구성하여 반복 진행하였다.

2. 조사실시 및 내용

본 조사는 2004년 8월에서 9월에 걸쳐 본 연구자가 30명의 피면접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코하우징의 특징을 설명하고 외국에서 개발, 운영되고 있는 몇 가지 코하우징 사례를 모형과 사진자료를 이용하여 소개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가사작업수행 파악을 위해서는 맞벌이 가족의 일반적 특성, 주택특성, 가사분담 상황, 자녀양육방식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맞벌이 가족의 코하우징 주의 식 파악을 위해서는 McCamant & Durrett (1994)과 Vestbro(2000)의 저서에 나타난 코하우징의 주요 특성을 연구자가 종합하여 자녀양육 영역에 대한 의식, 가사분담 영역에 대한 의식, 공유공간 활용에 대한 의식, 주거계획과 관리에 대한 거주자 참여 의식, 코하우징의 필요성과 거주 의사에 대한 의식 범주로 묶어서 구성하였다. 한편, 맞벌이 가족의 코하우징 주요구 파악을 위해서는 코하우징 주거지 환경에 대한 요구, 공동생활시설계획에 대한 요구, 개별주택계획에 대한 요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코하우징 주의식을 묻는 31문항은 '매우 그렇다(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4점 척도로 높은 점수는 요구정도가 큰 것을 나타낸다. 조사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코하우징 주의식 항목의 응답내용에 대해 내적 일관성 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 $\alpha = .8962$ 로 나타나 본 조사도구의 신뢰성이 인정되었다.

3. 자료의 분석

코하우징에 대한 주의식, 주요구에 관한 설문지는 연구자의 의도, 주관성, 편견의 개입으로 인한 분석의 객관성이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직접 작성하게 하여, 단순산술법을 이용한 양적인 분석을 하였다

III. 조사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특성, 주택특성, 가사분담상황, 자녀양육방식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맞벌이 가족의 생활을 종합해보면, 조사대상의 연령은 주로 30~40대로 고학력이며, 부인은 전문직과 남편은 사무직의 직업비율이 많았으며, 가계 월평균 소득은 101만원부터 501만원 이상 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다. 가구 구성은 자녀수 2인, 총가족수 4인에 막내자녀연령은 10세 미만이 가장 많았다. 서울의 고층아파트에서 주로 자기집에 거주하며, 주택의 규모는 주로 21평~40평이다. 집안일은 주로 본인이 담당하고 남편이 가끔 도와주며, 일과 가사·양육의 동시수행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낮시간에 자녀는 시설, 학원에 가거나, 조부모와 시간을 주로 보내며, 조사대상의 절반이상이 직장생활 하는데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2. 코하우징에 대한 주의식

코하우징내에서의 자녀양육 영역에 대한 의식을 살펴본 결과, 세 항목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어린이 놀이방이 또래친구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항목의 평균점수가 3.54로서 가장 높았지만 나머지 두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3.20, 3.21)를 나타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경우, 직장일로인해 육아 및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추측된다.

가사분담영역에 대한 의식을 알아본 결과, 항목 중에서 '여유있는 수납장소가 필요하다'(3.60)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위로는 '가족전원의 가사분담이 바람직하다'(3.30) 항목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경우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여유있는 수납장소와

가사분담을 위한 공간적 배려, 편리한 세탁시설, 편리한 부엌시설은 맞벌이 가족을 위한 코하우징 계획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된다

공동의 공유공간 활용에서는 공동산책로 및 벤치시설(3.70), 운동시설(3.67), 공동텃밭(3.40), 공동도서실(3.40), 공동취미실(3.27)은 모두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바쁜 생활에서도 여유로움과 건강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단지내 주민들과 공동으로 취미 생활을 배우고 익히는데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항목 중에서 공동부엌 및 식당에 대해서는 전체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평균점수(2.47)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점은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코하우징에서 공동부엌 및 공동식당이 주민의 공동생활을 촉진시키는 필수적인 공간이라는 점과 다르다고 하겠다.

주거계획 및 관리에 대한 거주자 참여의식 측면에서는 조사대상자 모두 높은 참여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김상희(2001)의 거주자 참여형 주택개발을 위한 주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공동건축 및 생활에 대한 의견 결과와도 일치한다. 가장 높은 평균점수(3.20)를 나타낸 것은 공동관리 참여 항목으로, 이는 주민 스스로 단지내 공동영역 관리에 긍정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 코하우징의 필요성과 거주의사를 질문한 결과, 코하우징의 필요성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점수(3.24)를 나타냈다. 그러나 코하우징 거주의사를 묻는 문항에서는 코하우징 필요도보다 낮은 점수(2.93)를 보였다.

3. 코하우징 계획에 대한 주요구

주거지 환경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희망하는 코하우징 지역 및 주민구성은 응답자의 90%가 대도시 근교가 적당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광고를 통해 뜻이 맞는 사람들과 주민구성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가구의 규모는 10-29가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코하우징 주택유형으로는 저층 구조의 연

립주택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희망하는 주택 공급방식은 분양형의 요구가 가장 높았다.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계획 요구에서는, 관리방식은 응답자의 50%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병행을 원했으며, 공동식사횟수에 있어서는 1주에 1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희망하는 내부공간 크기에서는 체력단련실-어린이 놀이방 순으로 크게 계획되기를 원하였으며, 방문객 숙소와 공동창고는 작게 계획되어도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개별주택계획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희망하는 개별주택의 규모는 30평이상 40평미만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필요한 침실의 개수는 응답자의 66.7%가 3개를 원하였고, 20%는 방 4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주택의 규모는 30-40평대의 방 3-4개가 있는 저층구조의 연립주택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넓게 계획되기를 원하는 공간은 거실이었고, 두 번째로 넓게 계획되기를 원하는 공간은 부엌이었다. 희망하는 부엌의 유형은 D/K, L형태 즉, 부엌과 식당을 개방하고, 거실은 따로 위치하는 것을 원하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희망하는 욕실 수는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응답자가 원하는 인테리어 양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대적(46.7%)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33.3%의 응답자는 자연적 양식이라고 응답하였다.

IV. 결 론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 연구의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 가족의 생활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족임에도 집안일은 주부 본인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시간이 부족한 경우, 가족원의 가사분담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일과 가사·양육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맞벌이 가족의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지원해 주기 위한 코하우징은 새로운 주거대안이 될 수 있

으며, 이를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2. 코하우징에 대한 주의식 분석을 종합하면, 코하우징은 어린이에게 좋은 환경이 될 것이며, 여유있는 수납장소는 가사분담 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의 공유공간으로 산책로나 벤치시설, 운동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단지 내 공동영역관리에 긍정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하우징 거주의를 묻는 문항에서는 코하우징 필요도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코하우징의 개념이 아직 생소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즉 코하우징의 의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거주의사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이 없어 코하우징 필요도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3. 조사대상자의 주요구는 앞으로 코하우징 계획시 어떠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었다. 주거지 환경은 대도시 근교의 10~29가구 규모로 구성된 개인소유의 저층 연립주택으로, 주민 구성은 공고를 통해 뜻이 맞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 만들어진 선진국의 코하우징 주민구성이 협동체 생활을 지지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는 점과 일치 한다고 하겠다.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많은 수가 체력단련실을 원하고, 공동육아 공간이 잘 계획되어지길 바랐는데 이 점은 어린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을 위한 공동생활시설 계획시 유념해야 될 점이다. 또한 개별주택에서는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특히 부엌부분의 수납창고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높은 순위로는 드레스룸이었는데, 이는 수납 물품 중 부엌용품과 옷 수납에 평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맞벌이 가족의 생활과 코하우징의 주의식, 주요구에 대한 심층적 탐색이 그 목적으로서 진행되었으며 이 연구의 결과

는 앞으로 코하우징 단지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더욱 늘어날 여성의 노동참여 증대, 자녀를 가진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위한 주거전략은 필요하다. 코하우징의 특징인 아동을 위한 좋은 환경, 인간의 동료애, 한 가구의 운영에 수반되는 가사노동의 단순화 등은 맞벌이 부부 모두에게 또 다른 긍정적 삶의 기회일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추세에 있는 맞벌이 가족의 생활의 질 향상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대년, 신혜경, 이경희, 최재순, 홍형욱 편역 (1995). 여성의 삶과 공간환경. 한올아카데미.
- 김상희(2001). 거주자 참여형 주택개발을 위한 주의식 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2권 제2호, 13-23.
- 김수경, 정유선, 윤정숙(2002). 한·일 취업주부의 가사생활 실태 및 주거요구 비교.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3권 1호, 1~9
- 남궁서영(2001). 코하우징의 공동생활시설 계획. 가톨릭대 석사논문.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99 5). 가사·생활일체 및 재택근무형 주택개발 연구 대한주택공사.
- 이경희(2000). 공동주택 개발에 있어서 서구의 협동주택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논문집, 제38권 2호, 185~202 .
- 이연숙 외(1994). 소형아파트 거주자 생활행태에 대응하는 주거단위내·외의 공간계획을 위한 소집단 패널연구 연세대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64-83
- 주거학연구회(2000). 세계의 코하우징. 교문사.
- 최정신(2003). 덴마크 자치관리모델 노인용 코하우징의 디자인 특성 대한가정학회논문집, 제41권 4호, 1~19.
- _____ (2003) 제3의 연령대를 위한 고령화 사회에의 도전: 스칸디나비아의 노인용 코하우

- 정. 대한건축학회지, 제47권 6호, 55 ~ 63.
- _____(2003).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9권 12호, 129 ~ 138.
- _____, 한주희(2003.10). 거주자참여에 의한 코하우징 디자인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
- 한국여성개발원(2002)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 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홍형욱(1995). 인간과 주거. 문운당.
- Fromm, D.(1991) Collaborative Communities. Van Nostrand Reinhold.
- McCamant.K & Durrett.C.(1994) Cohousing Ten Speed Press
- Choi,J.S. & Paulsson,J.(2003). A Study of Life and Physical Environment of Senior Cohousing in Scandinavian Countries. Proceedings 05 Stockholm Symposium on Nordic Studies, 55 ~ 73
- Vestbro, D U.(1997). Collective Housing in Scandinavia-How Feminism Revised A Modernist Experiment.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14:4 329 ~ 342.
- _____(2000). From Collective Housing to Cohousing,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17:2. 164 ~ 177